

## 인식론적 주제관점에서의 지식과 문헌분류의 전개고

## A study on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Knowledge and Library Classification in the Epistemological Subject Viewpoint

김 옥 희, 남 태 우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im Ok-hee, Nam Tae-woo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요 약

문헌분류는 지식분류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분류의 제 1원리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식의 발전과정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분류가 문헌분류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였다.

주제개념은 주관적 관념론, 객관적 관념론, 실용주의, 유물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라 지식분류가 어떤 인식의 관점에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인도의 베다분류법을 비롯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분류에서부터 현재의 머시업, 브리टे니카 3의 분류법에 이르기까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상보성을 규명하였다.

## 1. 서론

과학적인 분류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분류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무엇이 '학'의 범위에 속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의 원리뿐 아니라 현실적인 편의와 수요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지식분류의 이론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이 중요시 되며, 그 기초가 되는 주제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조직되거나 체계화된 부분으로 지식이나 학문이 어떤것에 관한 것인가를 유별화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고를 통해서서는 지식분류가 어떤 인식

론적 관점에서 전개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지식분류사의 발전이 문헌분류에 끼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주제

최근에 올란드(Birger Hjørland)는 '정보학에서의 주제의 개념'에서 문헌의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함축적이므로 주제문제에 대한 분명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주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주관적 관념론, 객관적 관념론, 실용주의로 나누어 분석하고 새로운 제안으로, 유물론적 주제개념을 이론

화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올랜드의 이론에 근거하여 주제문제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주관적관념론은 개념과 주제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견해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주제는 인식이나 견해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주제 개념에 대한 열쇠는 저자나 문헌의 이용자 혹은 정보전문가와 같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주관적 관념론의 주제인식은 저자, 이용자, 혹은 정보전문가에 의해 문헌의 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주관적 관념론이 주로 감각이나 지각과 같은 감각적 인식의 요소들을 강조하는 반면, 객관적 관념론은 개념이나 이념과 같은 이성적 인식의 요소들을 절대화하여 이론적 분석을 강조한다. 문헌은 특정주제로 표현된 아이디어들로 나누어지며, 아이디어로서 주제는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요소를 랑가나단은 CC에서 PMEST로 구분하고 있다. 객관적 관념론은 일정한 절차로 주제분석을 행하므로 문헌주제의 실용적 측면인 잠재적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실용주의적 주제는 정보센터와 정보시스템에서 지식분류를 위한 도구적, 실용적 역할을 한다. 문헌이 이용자 범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인간활동에 기초한 이용자의 요구를 예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문헌의 이용가능한 모든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 빈번한 반복으로 다양한 분류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유물론적 주제는 문헌의 객관적 속성을 파악하고 엄밀하게 도구적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주제결정을 위해서 문헌의 범주화와 주제기술과 관련있는 문헌의 속성에 관한 우선순위지정과 평가가 필요하다. 주제범위는 실제의 중요하고 일반적인 측면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 3. 지식분류의 전개

분류사는 주로 인간사유의 조직화를 시도하려는 역사로서 수천년 동안 철학자들은 사상의 분류 즉, 지식의 분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철학자들의 분류에 대한 접근방법은 이데아의 상호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그들을 분류하고 유용한 체계로 정리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지식분류사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학자, 학파, 또는 지식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지식분류에 대해 문화사적 시대와 지식분류사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 본 다음, 지식분류가 어떤 인식론적 관점에서 전개되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배다 지식분류법
- 2) 그리스시대의 지식분류법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분류
- 3) 스토아 학파의 지식분류법
- 4) 중세의 지식분류법 : ① 초기대학교의 지식분류 ② 스콜라학파의 지식분류
- 5) 자연과학시기의 지식분류법 : ① 베이컨 ② 홉스 ③ 데카르트 ④ 로크 ⑤ 백과전서파의 지식분류
- 6) 근세의 지식분류법 : ① 칸트 ② 헤겔 ③ 암페어 ④ 폰트 ⑤ 마르크스 ⑥ 스펜서의 지식분류
- 7) 20세기 지식분류법 : ① 피어스 ② 버시럽 ③ 브리테니카 3의 지식분류

### 4. 주제와 지식분류의 연관성

주제와 지식을 융합하려는 시도에서 주제의 인식론적 관점과 지식분류의 연관성을 규명하면 <표 1>과 같다. 일차적으로는 지식분류의 인식론적 근거나 원리에 기반을 두고, 근거나 원리가 희박한 경우에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기반으로 시도하였다.

<표 1> 주제와 지식분류의 연관성

종 류	정 의	해 당 지식 분류
주관적 관념론	개념과 주제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견해의 표현으로 생각한다. 주제는 인식이나 견해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베이컨 : 역사, 시학, 철학 (정신능력 중심) 칸트 : 철학적, 수학적 (원초적 인간의 본능) 암페어 : 우주론, 정신과학 폰트 : 추상과학, 구체과학(신학적 단계-형이상학적 단계-실증적 단계) 배다 : 드하마, 아사, 카마, 목사 (사회 중심적)
객관적 관념론	개념이나 이념과 같은 이성적 인식의 요소들을 절대화시켜 이론적인 분석이나 고정된 질차를 통해 문헌의 주제를 파악한다. 즉 대상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다.	플라톤 : 산수,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 아리스토텔레스 : 이론적철학, 실용적 철학, 생산적 철학 스토아학과 :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 초기 대학 : 자유7학과 스콜라학과 : 3학 4과 (대학교 중심적) 스펜서 : 추상과학, 추상-구체과학, 구체과학 (진화론적 순서) 데카르트 : 형이상학, 물리학, 기계학, 의학, 윤리학 백과전서과 : 신학, 인류학, 자연학 퍼어스 : 이론적학문, 실제적 학문 머시럽 : 실용적 지식, 교양적 지식, 감담 및 오락적 지식, 정신적 지식, 무용지식
실용주의	주제는 지식분류를 위한 도구적, 실용적 역할을 하며, 인간 활동에 기초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예상해야 한다. 분류체계의 이론이나 주류형성이 실제적 이용에 중점을 둔다.	브리테니카 3 훈스 : 자연철학, 정치철학(인과적 관계) 로크 : 지각적 지식, 논증적 지식, 감각적 지식 (경험) 헤겔 : 논리, 자연, 정신 (정반합의 변증법적 법칙) 마르크스 : 유물론
유물론	주제는 문헌의 객관적 속성을 포함하고, 도구적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주제는 가장 깊은 실재의 본질속에서 분석된다.	

5.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상보성

현대의 주요문헌분류표(DDC, EC, LCC, SC, CC)에서 주제구분의 원리는 일차적으로는 지식분류에 근거하고 있지만, 주류구분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부족하다. 이는 문헌분류표가 실제의 요구와 현실성의 편익에 의해 변할 수 밖에 없는 속성 때문이다.

DDC는 베이컨의 지식분류법에서, EC는 폰

트의 지식분류법에서 특히 주제의 배열에서는 스펜서의 진화론적 순서의 영향을 받았으며, CC는 암페어의 지식분류의 영향을 받았다. 지식분류와 문헌분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지식의 기본구조는 비교적 영구적이며, 전통적인 학문은 이러한 기본구조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문헌분류도 이러한 구조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이것을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의 합이라고 한다.

6. 결론

지식분류의 연원은 거의 2천여 동안 지식분류의 정형을 이루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법에서부터 시작되어, 17세기 초에 와서 새롭게 태동한 베이컨의 지식분류법으로의 변환기를 거친다. 그 후 데카르트, 스펜서, 헤겔 그리고 콩트로 이어져 오늘날 브리테니카의 지식분류까지 연결된다.

주제와 지식분류의 연관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관적 관념론의 지식분류는 정신능력을 중심으로 한 베이컨, 2분법으로 구분한 칸트, 암페어, 폰트의 지식분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 관념론의 지식분류는 베다, 고대 그리스의 분류법(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초기대학과 스콜라학파의 지식분류, 스펜서의 분류법이 이에 해당된다. 실용주의 측면에서는 분류체계의 이론이나 주제형성이 실제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데카르트, 피어스, 머시럽, 브리테니카 3 등의 지식분류를 들 수 있다. 유물론적 측면에서 지식분류는 홉스, 로크, 헤겔, 마르크스의 지식분류가 해당된다.

그러나 분류의 제 1원리인 문헌분류는 지식분류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분류의 현실성과 이론성이라는 2중의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참 고 문 헌

과학사상연구회 편. 과학과 철학 제 1집-4집. 서울, 통나무, 1991-1993.  
 김명옥. "서양의 자료분류법에 발달과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1993), pp.185-211.  
 김영식, 박성래, 송상용 공저. 과학사, 서울, 1994.  
 배영환. "학문분류의 발전과정과 문헌분류에 끼친 영향." 도서관, vol.41, no.2(1986), pp.25-36.

뷰캐넌, 브라이언. 문헌분류이론. 정필모, 오동근 공역. 서울, 구미무역, 1989.  
 소광희 등저. 현대의 학문체계. 서울, 민음사, 1994.  
 오스틴, 드릭. 분류연구그룹 공저. "분류원칙에 대한 의미론적 기초연구." 오동근 역, 국회도서관보, vol.26, no.4(1987), pp.54-68.  
 Beghtol, Clare.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theory and text linguistics : abountness analysis, intertextuality and the cognitive act of classifying document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2, no.2(1986), pp.84-113.  
 Bliss, H. E.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and the subject approach to books*. New York, H. W. Wilson Company, 1939.  
 Foskett, A. C.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4th ed., London, Bingley, 1982.  
 Hjørland, Birger. "The concept of 'subject'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8, no.2(1992), pp.172-200.  
 Kumar, Krishan.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79.  
 Langridge, D. W. *Subject analysis: Principles and Procedure*. London, Bowker-Saur, 1989.  
 Machlup, Fritz. *The Branches of Learning*.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Russell, B.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2nd ed.,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1.  
 Vickery, B. C. *Classification and indexing in Science*. 3rd ed., London, Butterworths, 1958.  
 -----, "Knowledge representation: a brief review,"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2, no.3(1986), pp.145-159.